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북도 장수군
- 산서지역아동센터



2019. 1

김*원

이전과는 달리 나이대가 다양하고 다문화 가정인 아이들이 많은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는 처음이라 산서지역아동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 외부 봉사자들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을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막상 센터에 도착하자 그동안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잘 따라주었고, 새로 온 봉사자들도 매우 반겨주었다. 기관에 있는 5일 동안 서툴렀을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로 보람을 주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봉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토록 어려워했던 영어 프로그램마저 점점 열의를 보이고 공부하는 모습에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마저 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김*지

산서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이화봉사단 활동은 나에게 굉장히 뜻 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나는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에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같이 놀자고 해서 너무 고마웠다. 실 틈 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아이들의 활발한 모습이 그립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 또한, 처음이라 부족했지만 우리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고마움도 많이 느꼈다. 항상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남듯이, 5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아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든다. 산서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모두, 그리고 낯선 곳에서 활동하면서 친해진 조원들까지도 잊지 못할 관계를 많이 만들어준 활동이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고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현

아이들을 위해 교육봉사도 하고 이화여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뜻 깊었던 기회였다. 처음에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가서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팀원끼리 시간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정하느라 2학기 말을 빠듯하게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하면서도 재미있었고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 같다. 오랜만에 핸드폰과 멀어져서 동네도 돌고, 어렸을 적 했던 놀이도 하며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나 또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느껴져서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건강한 봉사였다. 첫 날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아쉬워서 먼저 나서서 놀자고 한 것 같다. 봉사단원들과도 트러블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능력이 뛰어난지 확신이 서지도 않고, 혹시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지는 않을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며 수업도 중요하지만 함께 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일찍 와서 방을 두드리고 “선생님 일어나요~ 놀아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문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까지 센터에 머물고, 봉사단도 그 센터에서 봉사기간동안 살기 때문에 아이들과 거의 하루 종일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괜히 심술을 부리던 아이도 어느새 정들고 친해지고 헤어질 때가 되어 아쉬워했다. 이화봉사단이 되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 지원을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서*아

활동 전,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하였다. 활동이 끝난 지금 내가 만났던 아이들에게 나와 이화봉사단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각종 활동을 기획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뿌듯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승화되었다고 느낀다. 봉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난다.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한 달 진득하게 놀러왔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밋밋한 나의 일상에 계속 떠오르는 무언가가 생겨서 기쁘다. 요즘엔 개인적으로 기관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금방 잊히지 않아서 아쉬움이 날로 커진다.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조금 더 깊은, 주기적인 활동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없이 다가와 줘서 고마웠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달라서 저학년 아이들은 저학년에 맞게 고학년 아이들은 고학년에 맞게 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활발해서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나까지도 활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직접 만드는 활동이나 체육 활동처럼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게 눈에 보였다. 확실히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애초에 예상해갔던 것들보다 더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뿌듯했다.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봉사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매일매일 아이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니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신이 나기도 했다. 처음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즐겁게 봉사하다 온 의미 있는 5일이었다.